

##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저는 앞으로 몇주간에 걸쳐 다윗에 대해 series 로 공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 : 22 --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는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큰 축복을 받은 이유를 알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큰 축복을 받은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선 우리는

1. 하나님의 직무적 선택에 대하여
2.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 대하여.
3.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한 주,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믿음의 태도를 4 주,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한 주, 도합 여섯 번 공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직무적 선택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 직무적 선택은 이미 선택된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직무와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해 세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지금 논하려 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서 왕으로서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직무적 선택을 받아 기름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직무적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누구를 택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을 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3 : 22--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직무적 선택에 대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직무적 선택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면, 그 사람 개인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무적 선택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무를 위한 선택은 그 사람의 사람됨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무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실 계획을 가지시고 사무엘을 베들레헴의 이새의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 장남 엘리압이 제일 먼저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엘리압을 보고 감탄한 사무엘은,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 용모와 산장이 가장 좋아 임금감으로 보였는가 봅니다 -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이 사람이로구나” 생각하며 기름을 부으려 했습니다.

이 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 :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음에 둘째 아들이 섰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차례로 일곱 아들이 다 사무엘 앞에 섰는데 거기엔 아무도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가 다윗을 불러 오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윗아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직무적 선택의 기준에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였을까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직무적 선택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심은 영어로는 heart 입니다. heart 가 의미하는 바는 모든 사고와 행동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쉽게 말하면 모든 사고와 행동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직무적 선택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모든 사고와 행동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라 직무적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안에서 그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직무적 선택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인간도 같이 일을 하기 위해 마음이 일치한 사람을 찾습니다.

부부도 서로 마음이 일치해야 오래 행복하게 살지,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이어야 같이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과 일을 오래 잘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든 사고와 행동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무적 선택을 받아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선 우리는 모든 사고와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사고와 행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유독 하나님께 직무적 선택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열방 중에 크게 하시고 그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위의를 자를 끊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직무적 선택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일치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시어 능력에 능력을 부여 주시고,

하나님의 합한 사람을 선택하시어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고와 행동을 하나님 중심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많은 사람 가운데 찾아 내시어 증거하여 말씀하시길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시며,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시 89 편은

시편 89 : 19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시편 89 : 20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시편 89 : 21 내 손이 저와 함께 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시편 89 : 22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고케 못하리로다

시편 89 : 23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한하는 자를 치려니와

시편 89 : 24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윗과 동시대 사람들 중에 몇을 살펴 봄으로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무엘서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자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세 가지 예를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자 둘은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기 이전에 왕과 제사장 역할을 하는 엘리라는 사사와, 둘째는 사무엘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가 무엇인가를 그림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와 사울에 대해 공부를 해보십시오.

이 엘리와 사울은 모두 직무적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직무적 선택을 받았지만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기는 커녕, 중간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은 엘리와 사울을 살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 범죄할 때 엘리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엄벌을 하기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 다음과 같이 질책합니다. 삼상 2:30 을 보면

**사무엘상 2:30**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시겠다는 말입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면 오직 하나님 한분만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직무적 선택을 받아 주의 종이 되겠다고 지원병이 된 사람 중에는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쾌락과 명예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일은 주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한국에 교계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면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목사들이 없어지면 됩니다.

정말로 한심한 일은 불법으로 월북하여, 기독교와 반대적 입장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를 찬양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수용소로 보내고 처형하는 그런 반기독교적 체제를 옹호하는, 정신나간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 정권하에서 핍박 받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목사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목사의 직함은 가졌으나 기독교인이 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날 엘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를 면에서 찾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물질과 쾌락의 노예가 된 사람들, 정치에 노예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엘리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경고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다음에 직무적 선택을 받았으나 버림받은 사실을 사울 왕에게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엘리와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무엇인가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사울 왕은 직무적 선택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질 못하고 그 직무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상 13 : 14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 1 Samuel 13:14

**But now thy kingdom shall not continue: the Lord hath sought him a man after his own heart, and the Lord hath commanded him to be captain over his people, because thou hast not kept that which the Lord commanded thee.**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한 마디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불순종에 있습니다.

불순종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다음과 같이 질책합니다.

사무엘상 15 : 22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낮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 : 23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왜 그렇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주인의 말에 종이 항상 거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업원을 둔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뜻에 거역을 한다고 칩시다. 일주일도 못가서 fire 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직무적 선택에서 쫓겨 난다는 말입니다. 불순종은 주인의 권위에 종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마음과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직무적 선택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보여 주신 모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 :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여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완전히 굴복하여 하나가 되었다!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하여 하나가 되었다!

바로 HyperStatic Union 의 예를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직무적 선택을 받았으나 실패하여 버림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직무적 선택을 받아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 다윗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목숨을 내어 놓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는 조건이 됩니다.

만약 다윗이 엘리나 사울처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계속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행동과 사고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께 직무적 선택을 받아 크게 쓰임을 받은 이유는 다윗은 모든 행동과 사고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초립동(草笠童)으로 전쟁에 나간 형들을 위해 음식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이 때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때문에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며, 이리 저리로 도망을 다닐 때였습니다.

어린 다윗은 이것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이 할례없는 골리앗이 누구관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모욕한 것이 아니고,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고 분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중심에 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내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초립동이 물맷돌을 들고 싸우러 나오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고 하며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 때 다윗은 대답하길

사무엘상 17 : 45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사무엘상 17 : 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줄 알게 하겠고

사무엘상 17 : 47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가올 때 다윗도 그를 향해 달려 나가며, 물맷돌을 날리니 그 돌이 정수리에 정통으로 박혀 골리앗은 죽었습니다.

다윗이 덩치가 커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덩치 좋고 보기에 좋은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골리앗 앞에서 고양이 앞의 쥐처럼 도망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7 : 45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점이 다른 사람들과 다윗이 다른 점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focal point 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엿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 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십니다. 우리 다시 읽어 보십시오.

시편 89 : 19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시편 89 : 20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엿도다

시편 89 : 21 내 손이 저와 함께 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시편 89 : 22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고케 못하리로다

시편 89 : 23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한하는 자를 치려니와

시편 89 : 24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지금 internet 을 창취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믿습니다. 한사람도 스스로 선택하여 온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게 하셨음으로 이 시간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를 직무적 선택을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는 하나님의 직무적 선택을 받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하여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여 일으켜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고와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을 찾아 내시고, 그런 사람을 직무적 선택을 하여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직무적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직무적 선택을 받고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는 첫 번째 step 입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